

변신은
무죄



2018년
6월 둘째주

전남쌀산학협력단,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 성황

VOL. 188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une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콩 저비용 육묘 기계이식 기술 개발 보급

정책동향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2018년 제4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6~19도, 최고기온 : 24~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7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3

- ▶ 담양군,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4

- ▶ 전남농업기술원, 콩 저비용 육묘 기계이식 기술 개발 보급
- ▶ 전남농업기술원, 향장제품 특허 기술이전
- ▶ 전남농업기술원, 지네산업 발전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 전남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생산비 절감 결실조절 방법 개발
- ▶ 참당귀와 일당귀, 같은 당귀지만 이용법은 달라요
- ▶ 여름철 집중호우 농기계 침수 피해 예방 철저
- ▶ 풀사료 최대한 맑고 건조한 날 거둬들이세요!
- ▶ 보리·밀 저장, 습도 조절로 곰팡이독소 예방

6

정책 동향 22

- ▶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 농식품부, 2018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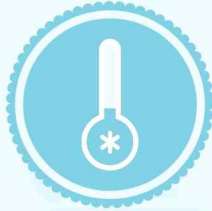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4

- ▶ 광양시, 토란, 취나물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
- ▶ 보성군, 과수 검역병해충 발생조사 실시
- ▶ 해남군, 동계 조사료 수확 한창
- ▶ 영광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 ▶ 장성군, 농업인 농업교육, 우리가 직접 편성해요

- ▶ 태국, 미국 돼지고기 수입 반대운동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8.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전남쌀산학연합력단,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 성황
- ▶ 2018년 제4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2.4°C
(평년대비 0.7°C 높음)
- 최고기온 : 27.7°C
(평년대비 0.7°C 높음)
- 최저기온 : 18.0°C
(평년대비 0.1°C 낮음)
- 강 수 량 : 3.4mm



목포시

- 평균기온 : 20.6°C
(평년대비 2.0°C 높음)
- 최고기온 : 25.4°C
(평년대비 0.3°C 높음)
- 최저기온 : 16.9°C
(평년대비 1.7°C 높음)
- 강 수 량 : 3.4mm

여수시

- 평균기온 : 20.3°C
(평년대비 1.5°C 높음)
- 최고기온 : 24.0°C
(평년대비 1.0°C 높음)
- 최저기온 : 17.4°C
(평년대비 1.1°C 높음)
- 강 수 량 : 3.7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8년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9%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2% 증가한 19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배추 예상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 감소한 16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평년보다 증가

- 6월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14%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준고랭지 1기작 출하량은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전체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노지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2% 적겠으나, 평년보다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 당 도매가격은 작년(3,460원)보다 높으나, 평년(4,490원)보다는 낮은 4,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주 출하 시기인 6월 상·중순 가격은 평년대비 약세가 지속되겠으며, 준고랭지 1기작 출하가 시작되는 하순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 시설봄무 생산량은 2만 톤으로 작년보다 10%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39%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 4% 감소한 10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6~7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 6월 출하량은 터널봄무 출하량이 증가하나, 저장 월동무와 시설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6월 가격은 작년(9,550원)보다 높으나, 전월보다는 하락한 11,000원/20kg(상품) 내외도 전망된다.
- 6월 순별 가격은 터널봄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중·하순이 상순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전망

- 2018년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5% 증가한 1,512ha로 조사되었다.
- 단수는 작황이 크게 좋았던 작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4,574kg/10a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8%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5% 증가한 6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6월 출하량은 시설 및 노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7% 적을 전망이다.
- 6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으나, 평년보다는 비슷한 4,000원/8kg(상품) 내외도 전망된다.
- 7월 출하량은 노지봄양배추 출하량이 감소하나, 출하비중이 높은 준고랭지 1기작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6. 11.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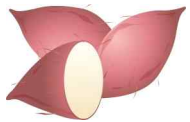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kg	44,660	44,600	↑ 4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520	31,800	39,533	↑ 13.0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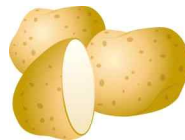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35kg	181,400	181,4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200	170,600	154,533	↑ 17.4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kg	44,200	44,200	↑ 6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080	26,700	27,547	↑ 60.5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kg	30,000	35,000	↓ 1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440	34,800	27,150	↑ 10.5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kg	5,000	4,900	↑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84	4,925	5,340	↓ 6.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8kg	4,300	4,800	↑ 3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880	3,160	4,039	↑ 6.5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0개	30,000	26,00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267	29,333	29,963	↑ 0.1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개	12,800	15,600	↑ 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560	12,700	13,017	↓ 1.7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60kg	1,193,200	1,180,000	↑ 11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51,000	722,667	↑ 65.1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kg	44,000	39,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760	40,800	38,723	↑ 13.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kg	145,000	14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kg	14,200	13,600	↓ 3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60	22,500	16,647	↓ 14.7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0kg	34,400	33,200	↑ 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720	33,350	31,810	↑ 8.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kg	1,460	1,5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4	1,420	1,620	↓ 9.9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5kg	20,000	20,200	↑ 2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000	16,550	18,457	↑ 8.4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kg	16,000	17,00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60	15,025	13,963	↑ 14.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kg	18,800	19,600	↑ 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400	17,400	16,570	↑ 13.5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5kg	14,000	16,600	↓ 1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240	16,850	13,613	↑ 2.8

과일류

사과(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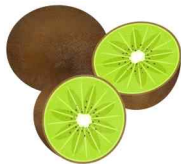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kg	38,000	39,200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800	38,700	43,900	↓	13.4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5kg	38,200	38,000	↓	1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200	47,450	49,083	↓	22.2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4)	1주일전 (5/28)	전년대비	
10kg	42,400	42,4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7,750	43,513	↓	2.6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0g	8,128	8,024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80	7,740	6,942	↑	17.1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kg	4,700	4,732	↓	2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4	5,887	5,633	↓	16.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30kg	498,000	498,000	↓	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21,000	533,083	↓	6.6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kg	13,600	13,600	↑	1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760	12,200	12,617	↑	7.8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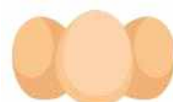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2kg	7,400	7,800	↓	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480	7,750	7,620	↓	2.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00g	1,892	1,846	↓	1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36	2,251	2,151	↓	12.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30개	4,154	4,161	↓	4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64	7,914	6,032	↓	31.1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1)	1주일전 (6/4)	전년대비	
1L	2,525	2,521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6	2,527	2,529	↓	0.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6. 11. 기준 / 단위 :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12	5,681	5,330	↓ 1.2	↑ 5.3
	거세	7,176	7,088	6,530	↑ 1.2	↑ 9.9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80	3,223	3,105	↑ 1.8	↑ 5.6
	수	4,156	4,104	3,917	↑ 1.3	↑ 6.1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84	3,393	2,66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26.8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4	284	19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 47.2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28	412	42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9	-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49	1,137	1,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7	↓ 37.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747	794	2,09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9	↓ 64.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767	1,600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4	↓ 33.7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담양군,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 담양 딸기 세계 수출시장 확대 -

- 담양군은 최근 담양 신선딸기 수출경영체인 창평농협 딸기 새벽이슬 공동선별회와 인근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 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에서는 농촌진흥청 수출 농업지원과, 농수산물유통센터 전문가가 컨설턴트로 나서 분야별로 강연을 진행한 후 수출 농업인과 일대일 맞춤 상담을 이어갔다. 또 딸기 육묘장에서 농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담양 딸기가 해외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전남농업기술원, 콩 저비용 옥묘 기계이식 기술 개발 보급

- 내년도 농진청 신기술 시범사업에 선정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밭작물 이식기와 콩 저비용 옥묘기술 개발로 내년 신기술 시범사업에 반영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지역 (주)죽암엠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식기는 보행 반자동 1조식이고 무게가 59kg으로 매우 가벼워 여성이나 고령자도 운전 가능하며 국내 이식기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다.
- 또한 콩, 배추, 옥수수 등 여러 작물에 활용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국내 밭 농업 특성에 맞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기종으로도 적합하다.
-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작년 8월에 양배추 이식 연시회를 실시한 결과, 1,000㎡를 2시간 20분에 이식하였고 결주율도 1.8%로 낮아 참석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았으며 수량도 인력이식과 비슷하여 실용화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이식기와 옥묘기술을 이용하면 콩 입모초기 나방류의 원줄기 절단 피해나 비둘기 등 조류의 떡잎 가해가 심한 지역에서 고품질 다수확, 비용절감 및 소득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친환경재배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향장제품 특허 기술이전

- 천연화장품 브랜드 개발로 향기산업 육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업의 치유산업의 실현과 선진국형 향기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28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주)하연과 (주)라피네제이 2개 업체와 향장제품 특허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천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번 기술이전에서는 천연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하연과 (주)라피네제이는 천연소재 화장품 브랜드 개발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향장제품 특허 모두를 기술이전을 받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쑥, 유자, 당귀, 어성초 등 도내에서 자생하는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정유 및 증류추출물을 이용하여 아로마 테라피와 향염증 등 피부효능이 있는 천연 향장제품 특허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꾸준히 실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지네산업 발전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6월 1일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웅금곤충산업과 지네 대량사육에 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체결한 주요 협약 내용은 △지네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지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지네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육, 가공, 유통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실험, 실습장 공유 등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지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방 및 충청북도 괴산 등지에서 채집하여 판매되고 있다.
- 중국에서는 왕지네를 오공(蜈蚣)이라고 하며 약용으로 대량 증식되고 있으나 전남 지역에서 지네 대량사육은 처음이다. 동의보감에서 왕지네(蜈蚣)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있으며 거풍, 지경, 항암, 독을 풀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곤충잠업연구소 구희연 연구사는“한약재와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용 소재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지네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사육농가의 사육실을 실험, 실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연구가 가능하여 지네 사육농가 소득 향상에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생산비 절감 결실조절 방법 개발

- 순지르기 이후 적뢰, 적화 작업 생략, 물 수분 2회로 경영비 53% 절감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의 대표 지역특화 아열대 과수인 골드키위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결실조절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참다래는 암나무나 수나무 한가지만으로는 정상적인 씨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인공수분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 또한 참다래는 다른 과수에 비해 생리적 낙과가 없어 과다 결실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품질 저하와 함께 다음해 결실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꽃봉오리 숙기, 열매숙기 등 적절한 결실량 조절이 필요하다.
- 특히 골드키위는 그린키위에 비해 수세가 왕성하고 개화량이 많아 노동력 투입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이 된다.
- 관행적으로 농가에서는 순지르기, 적뢰, 적화 작업을 하고 인공수분을 3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골드키위 노력절감을 위한 결실 조절 방법은 골드키위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수분 작업의 간편화 등 작업요소를 분석하여 농가투자여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발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골드키위 결실조절 방법은 순지르기 이후 적뢰, 적화 작업을 하지 않고 물수분하여 참다래 생산량과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요 작업시간을 약 55%, 경영비는 약 53%를 줄일 수 있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참당귀와 일당귀, 같은 당귀지만 이용법은 달라요

- 참당귀는 한약재로, 일당귀는 쌈 채소로 많이 쓰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참당귀와 일당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올바르게 알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당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이고, 일당귀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두 가지 모두 재배되고 있다.
- 효능이 다른 참당귀와 일당귀는 사용 방법도 다르다. 참당귀는 한약재로, 일당귀는 쌈 채소로 주로 이용된다. 참당귀 뿌리는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등 한약 처방에 쓰이며,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당귀 쌈 채소는 일당귀 잎이다.
- 참당귀에는 이 지표 성분이 있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당귀에는 없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다.
- 그러나 둘 다 잎은 장아찌와 뿌리는 차 등 식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당귀 추출물은 피부 미용에 좋아 입욕제와 비누, 화장품 등에 많이 이용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철 집중호우 농기계 침수 피해 예방 철저

-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최선... 침수되면 시동 금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가에서 농기계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빗물 또는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한 뒤 비에 맞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한다.
- 야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비닐 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날려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 침수된 농기계는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둘러서 정비를 해야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침수 시에는 기종을 불문하고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다. 아무런 조치 없이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배선이 타버릴 수 있다.
- 엔진 내부와 전기장치 등 물이나 흙이 들어간 곳을 깨끗이 세척한 후 건조시키며, 엔진 속에 흙탕물이나 오물이 들어간 경우 전문가에게 손질 받아야 한다.
-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 등도 모두 빼내 새 것으로 교환한다.
-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해낸 뒤 마른 걸레로 물기를 없애준 다음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공급되면 심각한 고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비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상 유무 확인 후 시동을 걸어 사용해야 한다.
- 농기계 관리 및 정비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의 농자재 → 농기계 → 농기계 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동영상과 사진이 수록돼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도 순회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정비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풀사료 최대한 맑고 건조한 날 거둬들이세요!

- 쓰러짐·부패·품질 저하 막아... 예비 건조도 비 피해 실시 -

- 트리티케일이나 귀리,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IRG) 같은 풀사료는 수확한 뒤 포장에서 예비 건조 과정을 거치는 데, 이 시기에 비를 맞으면 품질이 떨어진다. 최근 비가 잦았던 만큼 수확기를 맞은 풀사료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주로 가축 먹이로 이용되는 풀사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비오는 시기를 피해 수확할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 풀사료를 수확하기에 알맞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이다. 이 시기 중 맑고 토양이 말라있는 날에 맞춰 수확하는 것이 좋다.
- 수확 전에 비를 맞으면 식물체가 쓰러져 기계 수확이 어렵고, 토양 표면이 습해져 부패할 위험이 있어 가축이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된다.
- 예비 건조 중일 때 비를 맞으면 줄기가 갈변하고 영양분 함량이 줄어 사료 가치가 떨어진다.
- 또한, 곰팡이 발생으로 담근 먹이를 만들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오염된 먹이를 먹은 가축은 곰팡이독소(mycotoxin)에 의해 설사, 발육 부진, 호흡성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임신한 소는 유산하기도 한다.
- 만약 건조 중일 때 비를 맞았다면 반전집초기를 이용해 이틀 정도 잘 말려준다. 담근먹이용은 곤포 작업을 할 때 발효제를 넣으면 품질을 조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비를 맞으면 품질이 떨어지므로 무엇보다 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보리·밀 저장, 습도 조절로 곰팡이독소 예방

- 농촌진흥청, 곰팡이독소 오염 최소화 위한 맥류 저장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보리·밀 등 맥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곰팡이독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맥류 저장법을 소개했다.
-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성숙할 때까지 비가 오거나 습하면 발생이 느는데, 올해 강우가 잦아 예년보다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맥류는 니발레놀, 데옥시니발레놀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먹을 경우 구토나 복통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 수확 후에도 오염된 붉은곰팡이가 곡물에 남을 수 있으며, 한 번 만들어진 곰팡이독소는 제거가 어려워 수확 후에도 증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독소 오염을 최소화하려면 맥류를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해 즉시 건조한 다음, 서늘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맥류는 이삭이 젖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고 습도가 높거나 비가 내릴 때는 가급적 수확하지 않는다.
- 수확 시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한 발의 수확물은 따로 구분해 병든 낱알은 최대한 골라내고, 병이 발생하지 않은 수확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 수확 후에는 이삭의 수분 함량이 쌀보리와 겉보리는 14% 이하, 주보리는 13% 이하, 밀은 12%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건조한 맥류는 밀봉해 상온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온 창고는 연중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크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내부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와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저장고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 부득이하게 상온에 보관할 경우 저장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전남도, 보험료 부담액의 80% 지원... 29일 가입 만료 -

- 전라남도가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모내기를 마친 필지는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빠짐없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유난히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여름에는 태풍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아직까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지역농협 등에서 서둘러 가입해야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1ha(3천 평) 경작농가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나 순보험료 40만 원 가운데 약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군 전략회의 개최와 반상회, 시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4만 9천 ha로 지난해(8만 5천 ha)보다 저조해, 막바지 가입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 출처 : 전라남도

농식품부, 2018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6. 5. ~ 10. 15.)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앞당겨서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 관련기관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2종, 14천부)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금년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6월 말까지)에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 해당지역의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광양시, 토란, 취나물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

- 4천5백만 원 투입, 20농가에 토란 종구, 멀칭용 비닐, 비가림하우스 등 지원 -

- 광양시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 토란과 취나물을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시는 1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농가 1.8ha 면적을 대상으로 친환경 토란재배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토란은 4월 경 식재해 9~10월 쫄 수확하는 작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는 해당 농가가 토란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토란 종구와 멀칭용 비닐,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취나물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 세 곳을 대상으로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양시 취나물 재배면적은 총 37ha로 이 중 시설재배 면적이 4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로 재배한 취나물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생산량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시설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광양시



보성군, 과수 검역병해충 발생조사 실시

- 보성군은 오는 25일까지 과수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PPV)과 참다래 궤양병(Psa 3) 방지를 위한 발생조사를 실시한다.
-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을 조기에 박멸하고 참다래 궤양병의 새로운 병원형인 Psa 3 발생 분포를 비교·분석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 자두곰보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피해를 주고, 참다래 궤양병(Psa 3)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골드키위에 감염되어 피해를 일으킨다.
- 군은 관내 핵과류 및 참다래를 재배하는 461농가, 286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 병징 발견 시 시료 채집 후 검정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 검역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해외수출 및 국내유통이 어려워지고, 자두곰보병 발생 시 감염주는 즉각 굴취 및 매몰 처리되므로 향후 1년간 매몰된 자리에 핵과류 재배가 불가능해 상시적인 예찰을 통해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군 관계자는 “검역병해충 발생 피해는 한 농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관련작목 재배농가까지 영향을 끼친다”며, “재배 작업 시 기본적인 소독과 예방활동 등을 통해 병의 발생과 전파가 최소화 되도록 과수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동계 조사료 수확 한창

- 3403ha 사료작물 재배, 국내산 조사료 경쟁력 강화 -

- 해남 들녘마다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 수확이 한창이다.
- 한창 수확중인 사료작물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가 조사료 경영체와 사전 재배·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가을 파종해 월동한 동계 조사료로 6월말까지 수확을 마칠 계획이다.
- 주 수확 작목은 조단백 함량이 많아 영양가치가 높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연맥, 청보리 등으로 축산농가에 사일리지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해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사일리지 외에도 건초나 헤일리지 같은 저수분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고품질 사료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 올해 해남군에서는 3403ha 면적에서 5만4000여 톤을 생산할 전망으로 경종농가에서 32억여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 축산 농가는 연간 16억여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해남군은 관내에서는 한우 1566농가 3만 7118두, 젖소 13농가 1259두, 염소 61농가 614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등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해남군

영광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 오는 7월 2일까지 신청, 8월 13일 최종 선발 -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발(전국 400명, 전남 60명) 한다고 밝혔다.
- 최종 선발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비롯해 후계농 자금지원, 기술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업법인 인턴 등 관련된 연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연차별로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8명 선발과정에서 30명이 신청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신청 기간은 6월 8일(금)부터 7월 2일(월)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8월 3일(금)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해 8월 13일(월)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지사향) 또는 농업기술센터(061-350-48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영광군

장성군, 농업인 농업교육, 우리가 직접 편성해요

- 토크 교육 공모제 호평... 농업기술 상향평준화 기여 기대 -

- 장성군은 농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편성한 과정을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토크(talk-talk) 교육 공모제』를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 토크 교육 공모제는 관 중심의 교육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강사, 강의시기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 과정 당 4~6회 강의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토론·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토크 교육 공모제를 통한 농업 교육은 수준별 강의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소수정예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 강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심도 깊게 익힐 수 있다. 전체 교육의 80% 이상을 작목별 우수 농장에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농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강의다.
- 장성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2주간 농업인 연구회·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공모 신청을 받았고, 총 5개 단체(사과, 체리, 양봉, 감자, 정보화)가 공모에 응했다. 장성군은 교육의 적절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부 심사를 거친 결과 5개 단체 모두에 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 장성군은 토크 교육 공모제를 통한 농업 교육이 작목별 재배 기술을 상향평준화해 장성군의 농업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장성군



▶ 태국, 미국 돼지고기 수입 반대운동

- 태국 양돈업자(Thai Pig raisers)들은 미국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한다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 함.
- 태국 양돈협회 회장 Surachai Sutthitham씨의 말에 의하면 전국의 돼지-농민들은 이를 반갑게 여기지 않으며 태국 내 돼지 농장 산업이 붕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베트남 정부가 시장 개방 이후 미국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을 인용하였음.
- 태국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50바트 정도이며 돼지-농민의 생산비용 64바트/kg보다 훨씬 낮다고 함. 올해 태국 내 돼지고기 수요는 14,000,000마리로 추정 되고 생산량은 18,000,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태국 무역 선호도를 검토할 것이라 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USTR에 미국 상품에 대해 수혜국들이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지시함.
- 한편, 미국 양돈협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NPPC)는 태국 GPS(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적 선호 시스템) 자격 기준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으며, Jim Heimerl(NPPC 회장)은 태국이 수년 동안 미국 제품에 대해 공정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USTR이 미국 상품이 태국에서 얻는 불공정한 대우들을 확인해달라고 함.

- 4월에 NPPC는 무역대표부에 태국이 미국 제품(돼지고기 포함)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GSP 재검토를 의뢰함.
- NPPC는 태국이 엄청난 관세와 사실상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돼지고기 수익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미국 농업 수출에 대해서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을 누리고 있다고 함.
- NPPC는 트럼프 행정부가 MFN 프로그램에 따라 태국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제안하도록 촉구 했으며, 미국이 태국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없다면 혜택을 없앨 수 있다함.
- 2017년 미국 육류 수출 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에 따르면 태국으로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약 31톤으로 약 128,000달러(환화 약 1억3700만 원)라고 함.
- USMF는 EU가 태국 수입 돼지고기 대부분을 공급한다고 함.
- 시사점은 태국 내 미국 돼지고기 수입 시 예전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한우 농가가 폐업 한 것처럼 태국 돼지 농가 역시 상당 수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태국은 수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축장, 가공공장, 위생문제 및 기술의 후진성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앞으로 수출산업에 새로운 생산시스템 도입, 최신 도축장 신축 등으로의 투자가 예상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전 세계적인 기상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3%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계적인 기상 우려로 인해 상승했다. 다음 주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에서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5월 31일에 마감된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17/18년도 밀 취소분이 19,400톤 있었고, 18/19년에는 25만 900톤의 순 판매가 있었으며, 130만 4,700톤의 구곡 판매량은 18/19년도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강우 예보와 대두 약세에 영향을 받았다. 다음 주 미 중서부 곡물 벨트 지역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아 생산량 향상이 전망된다. 옥수수 선물은 순매수포지션을 유지중이다. 미 농무부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수출량을 무역 기대치인 80만 톤 ~ 130만 톤에 가까운 125만 6,900톤이라고 전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작황에 유리한 기후와 전매도로 인해 하락했다. 브라질의 헤알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다면 브라질 농부들은 기록적으로 18/19년 대두를 판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6월 14일부터 주 비축분 대두를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국영 곡물 거래소는 전했다. 실망스러운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가 추가 되었다. 미 농무부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대두 수출량을 19만 9,500톤 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무역 기대치인 40만 톤 ~ 100만 톤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전남쌀산학협력단,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 성황

- (주)쌍죽 『행복한 100%쌀 파스타』 대상, 상금 천 오백만원 수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8년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대회에서 나주 소재 (주)쌍죽 『행복한 100%쌀 파스타』 제품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지속적인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로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고자 개최했다.
- 광주·전남 소재 9개 업체 16개 제품이 참여하여 서류심사, 현장경진 등 열띤 경진결과 (주)쌍죽을 비롯한 구례 도올바이오파드, 나주 명성제분(주) 3개소가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사업비 3천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경진대회에 참가한 (주)쌍죽 서동고 대표는 “영세한 쌀 가공식품 개발 업체가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쌀 제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남쌀산학협력단 정찬수 단장은 “쌀 소비확대를 위해 이번 경진대회는 물론 쌀누룩을 활용한 쌀누룩막걸리, 쌀누룩고추장 등 기술을 개발하고 쌀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을 통해 쌀 소비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남쌀산학협력단은 쌀 소비확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을 목표로 1단계 3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1년차 사업을 수행중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018년 제4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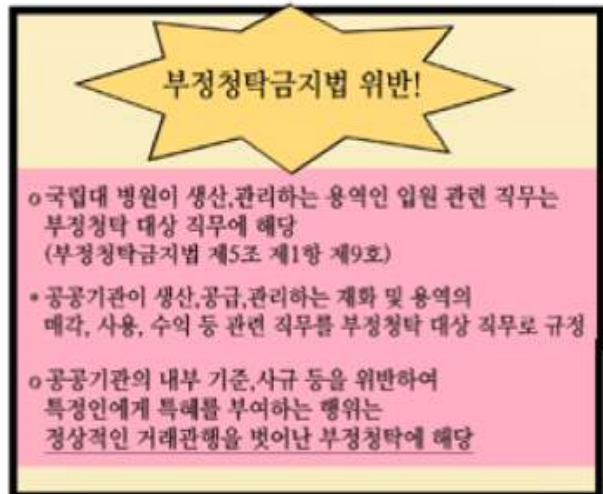
- 제4회 농식품창업콘테스트 6. 11. ~ 7. 18. 접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9~11월 중 공중파채널을 통해 방영(총 6회, 가칭 나는 농부다)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농식품 벤처를 3,000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방송함으로써 창업자, 투자자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3. 1. 1. 이후)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식품 및 농산물, ICT, 바이오, 농기자재, 서비스, 6차 산업 등 농식품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 콘테스트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는 등 총 1억 7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 신청 접수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38일간 콘테스트 홈페이지,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접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우편접수로 받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① 신청 접수	⇒	② 예선(지역)	⇒	③ 본선(전국)	⇒	④ 결 선
6. 11. ~ 7. 18.		7. 23. ~ 8. 7.		9. 10. ~ 11.		10월 초
-		45개 팀 선발		10개 팀 선발		순위 결정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88

